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2023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전주시의회
사무국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www.council.jeonju.go.kr

목 차

I. 출 장 개 요	1
II. 심사근거 및 절차	2
III. 배경 및 목적	3
IV. 기 대 효 과	14
V. 국 가 소 개	16
VI. 출 장 일 정	18
VII. 출장단 구성	19

2023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뉴질랜드』

I 출장 개요

- 기 간 : 2023년 5월 중
- 국 가 : 뉴질랜드
- 주 제
 - 문화경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탄소중립 및 스포츠·영화영상산업 활성화 방안 제고
 - 행 정: 도서관 운영 사례·청년 정책을 통한 기능과 역할 탐구
- 인 원 : 의원 15명
- 소요경비 : 1인 4,500천원(자부담 1,000천원)
 - ▶ 국외여비 지급항목 : 항공운임 - 실비
 - ▶ 지급기준(일비·식비·숙박비)

[단위: 1인/USD 1318.50원 / '23. 4. 18. 하나은행 기준]

구 분	총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원	일수	\$	계	일수	\$	계	일수	\$	계
의 원	1,588	2,093,780	10	30	300	10	44	440	8	106	848
직 원	1,588	2,093,780	10	30	300	10	44	440	8	106	848

※ 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 연수비용(예산범위 내 지급)
 - ▶ 의원 : 3,500,000원×14명 = 49,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회비(의원국외여비)
- 연수방법
 - ▶ 용역 수행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 선정
 - 역할 : 항공 및 호텔 예약, 현지교통, 보험가입, 안내 등 전반

- ▶ 방문기관 선정 : 연수 참여의원 선정(간담회) ⇨ 현지 코디안내
 - 의회사무국 : 방문장소 및 주요 벤치마킹 사항 등 공문시행
 - 용역업체 : 기관방문 사전협의, 방문대상자 및 보조자료 준비, 현지 전문 코디 활용 진행 등

II 심사근거 및 절차

□ 심사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회규칙 제36호, 2019. 3. 28.)

□ 추진계획

- 공무국외출장 심사 : 4. 21.(금)
- 용역업체 모집공고 : 4. 24.(월) ~ 5. 4.(목) / 10일간
- 제안신청서 접수 : 4. 24.(월) ~ 5. 4.(목) / 10일간
- 평가위원회 구성 : 5. 8.(월) 까지
- 용역업체 선정심사 : 5. 9.(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5. 10.(수)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5. 11.(목)
- **의원공무국외출장 : 5. 20.(토)**

III 배경 및 목적

□ 연수배경(문화경제위원회)

- 전주시는 한옥, 한식, 한복, 한지 등 각종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소리(판소리)의 본고장이자 전국에서 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3회 연속 선정(2014~2020)되는 등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오랜기간 동안 기능해왔고, 현재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관광도시로 인정을 받아오고 있음.
이와 더불어 도심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어 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올해 24회를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해오며 국내·외에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영상산업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영상산업 도시로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음.
- 이 외에도 전주시는 U-20 월드컵 대회와 2023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의 유치로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특화 도시로 나아갈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기도 함.
- 하지만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전주시는 관광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과제와 자연과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고민 또한 안고 있는 현실임.
- 전주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산업으로 무엇보다 관광이 최우선으로 거론되는 바, 현재 우리 지역이 가진 무수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연수배경(행정위원회)

1. 도서관 우수운영사례 벤치마킹

- 전주시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책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을 창의적인 혁신과 상상력으로 변화시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쓰고 즐기는 도서 문화를 확장하며 확실한 ‘책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일상에서 연계되는 특별한 도서관들로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지로도 손꼽히는 장소임.
- 특히 최근 전국 유일의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 운영사례를 통해 인문관광 콘텐츠로서 우리 지역 관광 코스와 도서관 이용사례를 연계해 차별화된 전주만의 특색으로 각광받고 있음.
- 그러나, 전주시의 도서관의 주요 기능은 이용자들의 편의와 독서 활성화 등 인문학적 소양 증진 및 교육과의 연계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이용 및 활성화 방안 또한 효과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도서관 본연의 기능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함.
- 관내 도서관의 양질의 정보매체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뉴질랜드의 CDRS 운영사례 등 도서관 운영 관련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또 우리 시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주시 독서마라톤, 전주시 독서대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도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청년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정치 참여 관련

- 2022년도 10월말 기준 전주시는 타도시 전출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62%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청년 인구 이탈 방지를 위해 전주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나, 2023년 전주시 청년정책과 예산을 살펴보면 약 24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전주만의 차별화 있는 청년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 전주만의 차별화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하나, 전주시 청년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부족한 상황임.
- 이와 달리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년 부처가 따로 있는 나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턴십을 제공하고, 젊은 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는 자문그룹도 운영되고 있음.
- 특히, 1944년부터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정치 참여와 시민교육을 진행하면서 기후 위기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쳐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
- 또한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 시의회와 지역 의회에 20~30대 의원들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우수 지원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 연수목적

문화경제: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

- 전주시는 왕의공원 프로젝트 및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음. 왕의공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로부터 조선왕조로 이어지는 전주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전주의 미래로 만든다는 구상임.
- 이에 시는 ▲전주고도(古都) 지정 ▲후백제 역사규명 ▲전주부성·전라감영 복원 ▲유·무형 문화재 등 다양한 역사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사문화자원이 지역 경제와 산업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주관광 케이블카 설치 ▲모악산 힐링공간 조성 ▲전주천 일대 관광단지 조성 등 혁신적인 거점 공간 조성 및 체류형 관광인프라 확대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에는 자연훼손 및 지역의 특성 등이 고루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훼손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함.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태관광 국가 뉴질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여행, ECO-Tourism 선진 사례지 견학을 통해 마오리족, 목축업, 화산, 숲 등 뉴질랜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훼손하지 않고 케이블카, 음식점, 관광지 등을 개발하고 있는 레드우드 수목원, 스카이라인 곤돌라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통하여 그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국가의 대표산업으로 생태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을 들어보고자 함.
- 인구 400명의 소도시 데카포가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 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지역의 자연 자원을 지키고 활용하며 관광 도시로 육성한 노하우를 및 유네스크 브랜드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함.

- 슬로우시티를 표방하는 뉴질랜드의 대표관광산업인 트레킹 성지를 방문하여 산악관광지에 MZ세대 관광객 유치에 대해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둘러보고자 함.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를 찾아 소규모 그룹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실, 쇼핑 공간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관광 안내소를 직접 둘러보고, MZ세대의 걷기(트레킹) 관광 활성화를 위한 데크길 조성, 국립공원 내 호텔(허미티지 호텔)등을 직접 둘러보고자 함.

문화경제: 국제경쟁력을 갖춘 영화영상산업

- 우리시는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K-Fli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등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임.
-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경우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
- 그러나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된 영화 ‘기생충’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받으며 촬영소 방문을 희망하는 요청이 많았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영화 세트장을 조기에 철거시키며 영화와 관광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에 실패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음.
- 세계적인 대작, 반지의 제왕 영화세트장을 활용하여 전문 운영 기업을 설립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마타마타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영화산업의 가치와 세트장이 지역 경제(일자리 창출, 관광 수입 발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보고 학습하고자 함.
- 또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촬영 세트장(KUMEU FILM STUDIOS)을 방문하여 영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규제개혁, 촬영 유치, 관련산업 육성 등) 방법과 사례를 알아보하고자 함.

문화경제: 미래성장의 새로운 동력 스포츠관광

- 전주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국내 대규모 스포츠 경기 유치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올해 9월 개최될 국·내외 50개국, 5,000여명의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참여 예정인 ‘전주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라는 대규모의 국제 대회를 준비 중에 있음.
- 이 외에도 전주시는 KCC(농구), 전북현대(축구)와 같은 프로구단이 상주해있는 도시이자, 전국에서 배드민턴 동호인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도시, 배드민턴 분야에서만 올림픽 메달 10개를 획득한 전력이 있는 스포츠 도시임.
- 이러한 인프라 및 세계선수권 대회의 명성을 바탕으로 우리시도 미래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관광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스포츠는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화합에 기여하고, 심신단련, 사회성 함양, 교육적 기능 및 오락적 기능 등 사회 내에서 다양한 순기능을 하고 있는 바,
- 청소년 스포츠의 본고장인 뉴질랜드가 10대들의 체육활동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 체육 정책 발표 이후 생활체육과 연계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방법과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또한 생활체육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체육이 스포츠관광(지역 간 교류, 대회참가 등) 시장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함.

행정: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 및 역할 탐구

- 뉴질랜드는 2017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의 ‘세계 미래 대비 교육지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던 교육 강국으로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의 창의력 교육은 수준 높기로 유명함.
- 더 나아가, 뉴질랜드는 영국식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로 역대 노벨상 수상자 배출뿐 아니라, 국제 수학능력 평가 대회에서도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특히 국민 독서량과 관심도가 세계 2~3위에 마크될 정도로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어 교육의 기초를 독서로 생각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1년 중 1권 이상 책을 읽는 성인이 85% 이상을 차지하며, 매해 감소하는 추세로 독서 비율이 50% 미만인 우리나라의 실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임. 이처럼 독서율이 높은 뉴질랜드에서 이용자들이 독서 활동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의 48%는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활용사례가 높은 편임.
- 이용량이 많은 뉴질랜드 공공도서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협력형디지털정보봉사(CDRS)이며, 협력형디지털정보봉사는 인터넷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정보서비스로, 전자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사서의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봉사임.
- CDRS 도입은 지리적 한계 극복을 통해 각 도서관의 전문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개별 도서관의 자원 한계 극복뿐만 아니라 지역별 도서관의 공동협력체제 활성화 및 이용자들의 니즈 파악으로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내고 있음.

- 대표적인 CDRS 사례로는 “AskNow” 와 “AnyQuestion” 를 운영중이며, “AskNow” 는 호주국립도서관 주도로 뉴질랜드국립도서관을 비롯해 20개여개의 국립·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CDRS로 호주와 뉴질랜드 사서가 3인 1조로 사서와 이용자 간 실시간 상호작용되어 진행되는 전문봉사이며 중·고등학생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에서 자체 시행하는 ‘AnyQuestion’ 은 뉴질랜드 국립도서관과 교육부 주관의 CDRS로 학교도서관협의회의 지원으로 뉴질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접속 외에도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kidsline과 youthline을 별도 구분운영해 유선상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우리 시의 경우도 공공도서관 CDRS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광역지역에 비해 전북지역은 평균 이하의 다소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효과적인 CDRS 도입을 위해 뉴질랜드의 우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이용자별·내용별 구분화된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 특히 관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생층임을 고려해 CDRS 운영 시 관내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적 연계방안 강구를 통해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 다양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박물관 등 타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도서관의 기능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행정: 젊은 정치의 무대, 청년인구 감소의 해법과 더불어 양성평등의 실현

- 미래세대인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장기적인 문제 해결 대응성을 높이며 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이나 사회 활동에 있어 청년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반해, 뉴질랜드는 국제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치 선진국 중 하나로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 정책을 독자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 각각 운영되는 등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청년 정치 육성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인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정치 참여의 문턱이 낮아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의정활동을 하는 경험이 흔함.
- 뉴질랜드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내 정치 교육 도입 및 자문기관 운영을 통해 청년 조직 활성화와 정치 참여도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 이는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뉴질랜드가 다양한 연령층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우리 시의 경우 6·1 지방선거로 선출된 35명의 의원 중

20~40대의 젊은 층의 의원이 15명으로 전체 의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의원 중 여성 의원은 약 31%로 여성의 정치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음.

- 뉴질랜드는 1893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로 역사적으로 여성 대표성이 강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 뉴질랜드 국회의원 중 여성이 과반수를 구성하는 등 여성의 참정권 확대 등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 의회가 다양한 구성으로 새로워진 만큼, 청년과 여성 그리고 소수민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뉴질랜드의 융합 정책과 청년인구 지속적 감소에 대응한 지원 정책 사례를 통해 우리 시 도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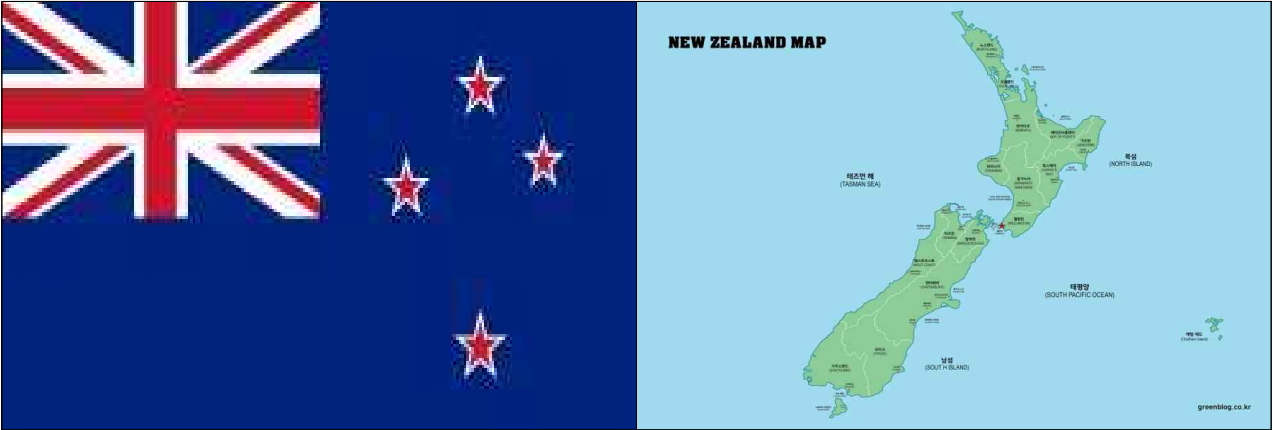
IV 기대 효과

- 우리시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사업 및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여러 시설들의 조성으로 영화영상산업 및 스포츠·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문화재 정책은 보존 관리 지원정책과 규제중심의 관리정책 위주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음.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환경의 가치를 고려해 마을과 도시, 지역과 연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창의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이를 정책의 효과로 나타내야 함.
- 또한, 전국 최다 로케이션촬영지로서 영화계의 중심에서 한국 영상산업을 이끌며 대규모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세계 선수권 대회 유치로 통해 얻어질 전주시의 명성을 관광마케팅과 연계한다면 엄청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임.
- 한편 우리 시 문화·영상산업의 발전 이면엔 저출생·청년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저출생·청년인구 감소라는 사회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우리 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살아가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교육 관련 실직적 대안 중 하나로 도서관을 연계 활용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아동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한 사교육 절감 효과 및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특히, 전주시는 지속적인 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사업을 통해 타 지자체와 비해 시설적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물적 자원과 더불어 인적·서비스 측면에서의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우리 시 도서관의 슬로건인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의 이미지 정착을 위해 뉴질랜드 도서관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도모를 통한 생활화된 독서 트렌드 선도와 교육정책을 접목시킨 도서관 운영사례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도 확대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오클랜드는 EIU에서 발표한 2021년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객관적 만족 지표가 높은 점은 제도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인식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 이에, 뉴질랜드에서 청년과 여성 그리고 소수민족 등이 계층별로 운영하고 있는 융합정책을 연구해 다양한 구성으로 새로워진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함.
- 사전에 충분한 사례조사 및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일정 추진으로 우리 의회 및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선진 정책을 체험하는 기회를 넘어 시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임.

V 국가 소개

뉴질랜드



□ 일반현황

- 남반구 남서 태평양에 위치하며, 수도는 웰링턴
- 면적은 약 26만km²로 한반도의 1.2배
- 인구는 2023년 현재 511만명 *대한민국 인구 5,155만

□ 정치

- 1984년부터 1996년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자유화를 거친 나라” 라고 평가될 정도로 과감한 신자유주의화를 추진했던 나라로 특히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통상적 정부형태가 연립정부인 다당제 국가로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 빈부 격차의 완화 등 사회·경제적 개선사항이 두드러지고 있음.
- 특히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반응성과 책임성이 높은 정부상을 확립했고 의원내각제로서 총 120석의 단원제와 지역구 63석, 마오리 지역구 할당 7석, 전국구 50석이며 의원들의 임기는 3년임.

□ 경제, 산업

- 대표적인 친환경 국가로서 ‘에너지 전략 2050’ 발표와 기후적·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한 차세대 개발 및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특히 NZ에너지 전략 2050을 통해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제로를 목표로 하며 2035년까지 전기 인프라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통해 에너지원의 효율적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적 책임을 감안한 새로운 에너지 자원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1999년 경제 회복 이후 현재까지 안정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낙농업의 증가하는 성장세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유럽, 동아시아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요가 그 배경으로 최근 세계시장의 수요에 따라 양·염소 및 소의 생산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VI 출 장 일 정

일차	방문지역	주 요 일 정	벤치마킹 사항
1일	인천공항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출발 → 오클랜드 	
2일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rkenhead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정책 및 CDRS 운영 사례
3일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UMEU FILM STUDI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의 기능과 역할
4일	마타마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ngs Scenic Tour Limited (반지의 제왕 세트장 운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세트장의 운영 방식과 지역경제 기여방안
5일	로토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드우드 수목원 • 스카이라인 곤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과 전통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
6일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 정책
7일	크라이스트처치 데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라이스트처치 도서관 • 소도시의 관광마케팅 사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활용법 •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 유산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사례
8일	데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오라키 마운트쿡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Z세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9일	오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한인생활체육회 • 한인배드민턴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의 스포츠 관광 기여 및 역할
10일	오클랜드 인천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클랜드 출발 → 인천공항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Ⅶ 출장단 구성

□ 구성인원 : 의원 15

연번	직책	성명	영문성명	여권번호	성별	비고
1	단원	송영진			남	문화경제 위원회
2	단원	전윤미			여	
3	단원	김윤철			남	
4	단원	박혜숙			여	
5	단원	온혜정			여	
6	단원	장병익			남	
7	단원	이성국			남	
8	단원	신유정			여	
9	단원	정섬길			여	행정 위원회
10	단원	최명권			남	
11	단원	김정명			남	
12	단원	남관우			남	
13	단원	박형배			남	
14	단원	이보순			여	
15	단원	최주만			남	